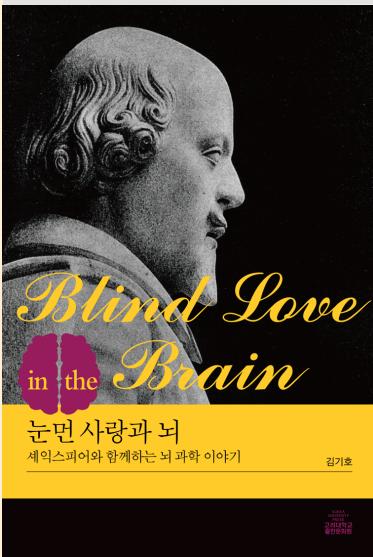


셰익스피어와 함께 떠나는 자아 찾기의 여정

『눈먼 사랑과 뇌—셰익스피어와 함께하는 뇌 과학 이야기』

서평자 박우수(한국외대 영어대학 교수)

“이 책은 셰익스피어 작품 속 명구는 물론 셰익스피어 작품 속 언어 안에
감추어진 뇌의 비밀들을 작품 해설과 함께 풀어 나가는 책.” (책머리에서)



김기호 지음 | 2020년 2월 20일 발행
신국판 | 464쪽

로미오와 줄리엣 – 5일간의 사랑 이야기
줄리어스 시저 – 브루투스, 너마저도
햄릿 – 권력·가족·사랑의 비극
맥베스 – 권력욕의 노예
헨리 5세 – 위대한 왕으로 변신한 해리 왕자
베니스의 상인 – 사랑과 우정의 엉깔린 운명
템페스트 – 복수로 시작하여 사랑과 용서로
막 내리는 템페스트

21세기 들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함께 얘기되는 것이 뇌 과학이다. 노예제도가 19세기 중반 유럽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노동을 대신할 대체물을 추구하고 있다. 노동이 아무리 신성한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놀이보다는 못하고,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강요된 노동을 대신해 줄 로봇과 같은 하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체물 생산으로 전이되고, 이러한 기계적인 인간을 뒷받침해 줄 뇌에 대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설명이 필요한 데서 최근의 뇌 과학에 대한 관심은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뇌 과학’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형용모순이다. 과학이 고전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인 깊이를 의미하지 않고, 노동 분업과 발달을 맞춰 분과 과학으로 자리 잡은 마당에, ‘뇌 과학’이란 용어는 ‘뇌 지식’이란 포괄적인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 과학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발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식, 깊이란 것이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 정서, 믿음 등 온갖 것들의 신경망의 통합이라는 포괄성이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처럼 한 국가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다른 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상호(의존)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듯, 모든 사물의 질서가 그 주변 것들과 하나의 통일장을 이루고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의 고전적인 진리 개념을 뇌 과학은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분업화된 인간의 깊이의 영역을 전체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소위 “르네상스 인간”的 전형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셰익스피어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시점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김기호 교수(이하 저자)가 뇌 과학과 셰익스피어를 연결 짓는 묵중한 저서를 내놓아 셰익스피어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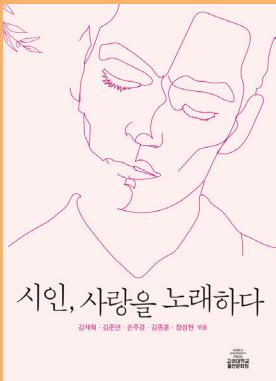
저자가 책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눈먼 사랑”이란 그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설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콩깍지 끈 사랑”的 다른 표현이다. 그는 이 표현을 셰익스피어의 또 다른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첫눈에 반한 사랑을 설명하면서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사랑에 빠지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합리적 사고를 못하고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감정과 이성이 별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감정을 지배하는 대뇌의 변연계 부위와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주관하는 대뇌 신피질 부위가 서로 작용하여 하나의 일체감을 가질 때 가장 절정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331쪽). 첫눈에 사랑에 빠진 연인은 일종의 마약에 도취된 사람이라는 설명이다. 첫눈에 반한 사랑, 즉 낭만적 사랑이라는 주제는 셰익스피어가 그의 낭만희극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제로, 좀처럼 남의 글을 직접인용하지 않는 셰익스피어가 거의 유일하게 자신과 동시대 시인 이자 극작가인 크리스토퍼 말로의 “첫눈에 반하지 않은 사람치고 그 누가 사랑을 했으리오?”라는 시구를 『한 여름 밤의 꿈』에서 인용하면서 극화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 대표적인 낭만희극에서 그 첫눈에 반한 사랑은 매우 비판적으로 희화화되고 있다. 일종의 마약에 취한 요정 여왕 티타니아가 닉 보텀과 첫눈에 반한 사랑은 그 약효가 다 하자 수치와 조롱의 대상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아테네의 젊은 연인들이 숲 속에서 벌이는 혼돈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 진실

한 것이 못 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점은 셰익스피어의 초기 희극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사실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셔와 바사니오의 사랑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이다. 이런 분석의 한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뇌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현재의 뇌 과학 연구는 대체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서 출발하여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인간의 뇌를 일종의 지도로 치환하는 접근법은 독도법을 넘어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한 여전히 실증과학의 한계 안에 머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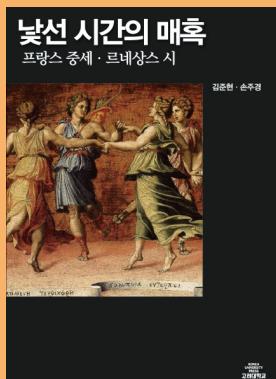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 과학 이야기는 뇌가 모든 인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데 이 책의 미덕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의 지속적인 관심은 ‘참된 나’인 “진아(眞我)”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다. 책의 중간중간에 끼워 넣은 <잠깐 쉬어 가기>는 이 책을 읽는 재미 중의 하나인데, 이는 한결같이 저자의 여행담,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정신의 순례길들에서 간이역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뇌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과연 인간 정신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나에게 이를 수 있는지 필자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저자의 뇌 과학에 대한 관심을 바로 이러한 자아 찾기의 과정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셰익스피어의 주된 작품 일곱 편을 선정해 이들 작품에 대해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중요한 변곡점들을 추려 여기서 제기된 주된 정서를 뇌 과학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곳곳에 들어있는 <잠깐 쉬어 가기>는 일종의 잔소리로, 사실 독자로서는 필자의 담백한 자기고백인 이들 쉼터에서 동시에 휴식을 취하는 기쁨을 누린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쉬어 가기>에서는 책을 끝맺는 아쉬움이 강했던지 한국의 암울한 젊은이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격문조의 희망가를 던짐으로써 지금껏 유지해 왔던 담담한 문체와 전혀 다른 문체 일탈을 보인다. 저자의 의도야 짐작이 있지만 자칫 교훈적인 어조가 너무 강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글로 책을 마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기서 잠깐!”이란 표현은 저자의 것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뇌 과학을 연결시키는 고리로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 표현을 그의 설명에 대한 일종의 유보의 표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는 가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뇌 과학의 설명에 비추어 재단하는데, 뇌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연계적 진리의 모범으로 셰익스피어가 등장하는 마당에 이는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저자는 5일 간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로미오와 줄리엣』을 설명하는 가운데, ‘장미’라는 이름이 과연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똑같은 의미를 지닐까 하는 문제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뇌 과학자들의 실험결과는 이를 부정한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이와 달리 “이름이 의미가 없다”(51쪽)고 그는 주장한다. 이것은 “천 개의 마음을 가진” 시인의 포괄성을 부정하는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줄리엣과 셰익스피어를 동일시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오히려 셰익스피어는 이름이 의미가 있다는 쪽이며, 그 이름이 지닌 무서운 파괴력을 작품에서 보여주는 편이다. 뇌 과학과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이 좀 더 치밀하게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책 곳곳에서 엿보인다. 그러나 뇌 과학을 통해서 저자가 펼치고자 하는 지혜의 중요성은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의 다른 이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아직은 기다리며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지혜의 시대를 강조하며 셰익스피어를 표본으로 내세운 저자의 시도는 뒤따르는 생산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의 시도는 셰익스피어 연구자들을 이미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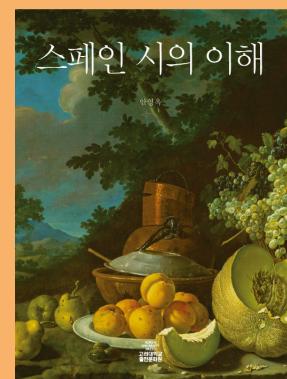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시인, 사랑을 노래하다 | 김재혁 외 역음



낯선 시간의 매혹 | 김준현·손주경 지음



스페인 시의 이해 | 안영옥 지음

KOREA
UNIVERSITY
PRESS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